

# 농촌청소년의 직업능력분석\*

이채식\* · 박은식\*\*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박사후연구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지도관

## A Study on the Vocational Competencies of Rural Youths

Chae Shik Lee · Eun Shik Park,

Researcher,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vocational competencies of rural youths.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focus group interview an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rural youths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 The SPSSWIN/ver13 was used for analyzing data with t-test, ANOVA, and factor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rural youths showed higher competencies in handling and fixing machines, selecting seeds, where as rural youths showed lower competencies in goal setting, envisioning, acquiring agricultural policy information, management evaluation. Secondly, rural youths predicted optimistic future of their own farming even though the future of national farming should get smaller. Lastly, rural youths who are higher education, extending farming size, establishing farm had higher vocational competencies than other youths. Conclusionally, the study suggests adult-farmers give rural youth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and farming.

주요어: 농촌청소년, 직업능력

Key words: rural youth, vocational competency

## I. 서론

지속적인 농촌사회유지 및 농업발전에 있어 지속적인 후계농업인력의 육성은 핵심적 요소이다. 농업환경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속에서 후계농업인력의 육성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쟁력이라는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농업을 위해 전통적인 농업기술 및 농업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농업유통, 마케팅, 농업관련 정보, 리더십 등 다양한 영역의 직업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농촌인구의 도시유출로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농업계승을 위한 후계인력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안정적 농업후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 연구들이 농업인력육성체제나 후계농업인력육성현황을 다루거나(이용환 외, 2000; 정철영, 1999), 농업계 고등학교나 학령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허기채, 1993; 서우석, 2002; 유장열, 1984;

\* 이 연구는 2005년도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된 것임

이용환 · 서우석, 1995; 조완규 · 송해균 · 이용환, 1984). 이러한 연구들은 급격한 변화속에서 농업 인력육성체계의 개편이나 체계화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자질이나 능력을 제공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우리 농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분야와는 달리 직업으로서 농업은 해당분야에 대한 기초적 지식습득이나 기술의 숙련 등의 기본적 능력개발에서부터 유통과 소비, 경영목표설정, 성과분석 등의 전문적 영역을 포괄하는 직업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직업능력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성숙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직업발달에서 20대는 이전까지의 잠정적이며 준비단계를 넘어선 현실단계에서 구체적 결정을 통해 직업세계에 본격적으로 생활하는 한편 직업전문화를 이루어 가는 시기이다(Hall & Nougaim, 1968) 농촌청소년들이 성공적인 농업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농업분야의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영농에 대한 가치를 그들 스스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청소년들이 부분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감독하에서 또는 부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도록 계획적으로 지도하여 독립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자질은 물론 자산적 측면에서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아 연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에 뜻을 둔 농촌청소년들의 농업직업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성공적인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으로서 직업능력을 도출하는 한편 20대 농촌청소년들의 직업능력에 대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 농촌청소년의 직업능력

### 1. 농촌청소년의 직업발달

인간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 및 사회생활

을 위하여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직업유지를 위한 직업발달은 장기간의 계속적인 직업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Super, 1953). 직업발달은 인간이 가진 능력·흥미·인성 등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인 요소에 의하여 시간과 경험속에서 변화되며 선택과 적응을 이루는 끊임 없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최만호, 1987). 직업발달은 개인의 직업적 소양과 가치, 지식, 및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배양하며, 직업적 성숙의 결과를 낳는 과정이다(김충기, 1983). Super(1953)에 의하면 청소년의 직업발달은 탐색기를 거쳐 확립기로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15-17세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흥미·능력·가치와 직업적인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잠정기, 18-21세는 현실적인 요인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는 전환, 22-24세는 자기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하여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게 되며 시험해 보는 시행기를 거치게 된다. 20대 중반 이 후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25-30세까지의 청소년은 자신이 선택한 일의 분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한두 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행기이며, 31-44세는 진로유형이 분명해짐에 따라 그것을 안정시키고, 직업세계에서 안정된 위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안정기에 해당한다.

농촌청소년이 농직업분야의 성공적인 농업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은 청소년이 순간적으로 영농을 결심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정이며 밝아야 할 단계가 많은 다원적인 과정이다. 첫째 단계에서 농촌청소년은 직업세계를 알고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연관시켜는 가운데 농업에 대해서 알아가며 농업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개발하게 하면서 농업종사를 결심하게 한다. 둘째 단계에서 농촌청소년은 농업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영농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농업의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영농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게 된다. 셋째 단계에서 농촌청소년은 영농정착을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데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농가에서 영농을 실습적인 의미에서 혹은 부분적인 책임하에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다. 넷째 단계에서 농촌청소년은 독립적인 농업종사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적인 농업에 종사한다(최민호, 1987).

## 2. 농촌청소년의 직업능력

인간이 성공적인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직업능력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 능력의 총체이다(이무근, 1997; 정철영외, 1998). 인간은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주어진 역할과 직무에 따라 다양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자신의 생애동안 성공적인 삶과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등의 기초능력과 특정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농촌청소년이 성공적인 농업인이 되기 위해 다양한 자질과 능력개발이 요청되어진다. Johnson(1955)는 훌륭한 농업인이 되기 위한 자질로 농업경영능력, 기술적 지식, 훌륭한 건강과 신체적 힘, 판단력·인내·지속성, 영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 자연법칙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능력,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충성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신념을 제시하였으며, 장국선(1986)은 영농성공을 위한 농업인의 자질을 개인적 자질과 농장경영사항으로 구분하였다. 이영대(1981)는 농업인으로 영농정착에 있어 건강, 성공의욕, 부지런함, 사업경영능력, 농업지식 및 기술, 관련서류 및 부기, 농업적성 등을 자질과 능력을 제시하였으며, 류창렬(1982)은 농업인에게 건

강, 기술증대 위한 자발적 행동, 농업적성, 농업태도 등의 능력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원상봉(1983)은 농업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정의적 직업능력으로 인내심, 강한 의욕과 야망, 성실, 자립정신, 정확성, 책임감, 동식물에 대한 애착, 결단력, 주의깊은 사고 및 판단력, 시간엄수, 새로운 환경에의 빠른 적응 등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도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 농업을 위한 직업능력이 제시되었다. 차동욱·소순열(1999)은 농업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계획, 의사결정, 실행, 진단 및 평가 등의 과정속에서 생산 능력과 경영기술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안덕현, 고일웅, 이상하(1998)는 이상적 청년농업인 상을 제시하면서 농업인으로서 의식, 시장, 자원의 배분 및 생산, 투자, 유통, 재배 및 가공 기술, 농업생산자원 및 구조, 정보화시대와 지구촌, 친환경농업 등의 농업경영인으로서 역할수행 능력, 영농정착단계, 지도자성장단계, 지도자단계 등의 농업 및 농촌지도자로서 역할수행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이용환등(2001)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신지식농업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할을 일반자질 및 전문자질로 제시하였다. 일반자질에는 1)인지능력: 건강관리능력, 긍정 사고방식,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시간관리능력, 외국어 독해능력, 의사결정능력, 의사소통능력, 인간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창의력, 통찰력, 환경적응력, 2)정의적 특성: 개방성, 계획성, 도전정신, 리더십, 성실성, 책임감, 타인지향성 등이었다. 전문자질에는 1)인지능력: 경영능력, 농업적성, 농업전문지식 및 기술, 농장관리능력, 2)정의적 특성: 농업흥미, 애농심, 영농의지, 직업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농촌청소년이 직업발달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탐색과 농업인으로서 자신을 확립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농업인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의 대상

설문조사는 2003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 중에서 20-29세에 해당하는 농촌청소년 291,037명을 모집단하였다. 표본추출은 전국의 20개 시·군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별로 10명의 농촌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에서 선발된 조사요원이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조사목적 및 조사표 작성요령을 제시하여 설문조사 이전 조사요원이 숙지하도록 하였다.

#### 2. 조사도구와 측정방법

설문조사의 내용은 농촌청소년에게 요구되는 농업직업능력 관련문항, 영농형태, 주요작목, 영농전망 및 영농활동관련 문항 및 성, 소득, 결혼유무 등 개인적 특성에 대한 문항이었다. 농촌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도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 및 농촌청소년, 농업인력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3회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병행하여 18개의 설문문항을 마련하였다. 농촌청소년의 직업능력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적도를 확인한 결과, KMO값은 .860이며 Bartlett구형성 검증값은 2395.45, 자유도=136,  $p < .001$ 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법의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법에 의해 7회전되었으며, 4개의 직업능력 요인이 추출되었다. 1요인은 농업경영성과, 영농기록유지, 및 영농비전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농업경영능력’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적재값은 5.894이며 설명된 분산은 34.67%였다. 2요인은 농업정보, 기상정보, 교육적용, 문제해결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정책정보활용능력’요인으로 하였으며, 적재값은 1.539, 설명된 분산은 9.05%이었다. 3요인은 품종선택, 병충해관리, 수확후 관리 등의 문항을 포함하는 ‘농업

생산능력’요인으로 적재값은 1.419, 설명된 분산은 8.34%였다. 4요인은 농기계조작 및 농기계관리 등을 포함하여 ‘농기계관리’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적재값은 1.256이었으며 설명된 분산은 7.39%이었다.

#### 3. 자료분석

배포된 200매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설문응답의 누락이 많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6개의 설문문항을 제외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1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 교차분석, 변량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 현황 및 농촌청소년의 직업능력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농촌청소년의 영농종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농촌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영농특성에 따른 직업능력의 차이분석을 위해 t검증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현황

##### 가. 응답자의 일반현황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은 <표 1>과 같았다. 응답한 농촌청소년은 모두 남성 농촌청소년이었으며, 만 26세 이상의 농촌청소년이 51.0%이며, 학력에 있어 전문대졸 43.4%로 가장 많았다. 농촌청소년의 학교재학시 성적은 중위권이 7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상위권은 21.0%였다. 농업인의 영농형태에 있어 승계농이 74.5%로 3/4인 반면 창업농은 24.5%에 그쳤다. 농촌청소년의 영농규모는 중농이 절반이상(58.2%)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농이 31.1%였다. 최근 3년간 영농규모변화를 보면 규모확대의 비율이 54.0%였으며 규모유지가 39.0%였다. 농업경영인은 50세 이상이 60.9%였으며, 학력은 고졸이상이 52.1%였으나 무학이나 초졸이하인 응답자도 19.6%였다. 경영권이양에 있어 부자약속 43.3%, 잠정

판단은 22.5%였으며, 영농규모에 있어 중농이 66.1%로 2/3을 차지하였다. 최근 3년간 영농규모를 확대한 농업경영인은 55.7%인 반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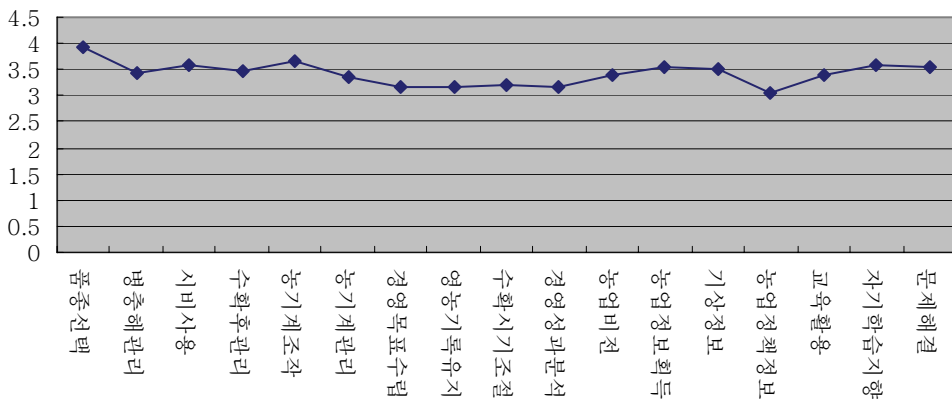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단위: 명, %)	
연령	26세이상	100	51.0	영농승계	창업농	48	24.5
	25세이하	93	47.4		승계농	146	74.5
학력	고졸	67	34.2	영농규모	대농	19	9.7
	전문대	85	43.4		중농	114	58.2
	대졸	44	22.4		소농	61	31.1
경제수준	상위층	62	31.6	영농분야	작물	77	40.0
	중간	110	56.1		과수·원예·채소	58	30.0
	하위층	24	12.2		축산	58	30.0
경영이양	부자약속	113	58.0	영농규모 변화	확대	104	54.0
	감정판단	55	28.0		동일	74	39.0
	없음	27	14		축소	13	7.0

나. 농촌청소년의 직업능력 일반현황

농촌청소년의 직업능력은 <그림 1>과 같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청소년은 품종선택, 농기계조작, 농기계관리 시비사용, 문제해결능력 등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농촌청소년은 농업 정책정보, 경영목표수립, 경영성과분석, 수확시

기조절, 영농기록유지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능력의 4개 요인별로 보면 농업생산능력 및 농기계관리 등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업경영능력 요인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농촌청소년의 직업능력 일반현황

<표 2> 농촌청소년의 영농의사결정형태

단위: %(명)

		영농의사결정형태			합 계
		부모주도	상호협약	자녀주도	
연령	26세 이상	38.2	52.8	9.0	100.0(100)
	25세 이하	41.0	51.8	7.2	100.0( 93)
학력	고 졸	45.3	46.9	7.8	100.0( 67)
	전 문 대	41.9	48.6	9.5	100.0( 85)
	대 졸	27.0	67.6	5.4	100.0( 44)
영농 분야	작 물	35.2	57.7	7.0	100.0( 78)
	과수·원예·채소	52.9	41.2	5.9	100.0( 58)
	축 산	34.0	54.7	11.3	100.0( 58)
경제 수준	상 위	25.0	55.0	20.0	100.0( 40)
	중 위	35.0	47.4	17.5	100.0(137)
	하 위	66.7	22.2	11.1	100.0( 18)
영농 승계	창 업 농	25.0	41.7	33.3	100.0( 48)
	승 계 농	39.0	48.6	12.3	100.0(146)
영농 규모	중농이상	33.1	51.1	15.8	100.0(133)
	소 농	41.0	37.7	21.3	100.0( 61)
영농 규모 변화	확 대	29.8	53.8	16.3	100.0(104)
	동 일	40.0	42.7	17.3	100.0( 75)
	축 소	61.5	15.4	23.1	100.0( 13)
경영 이양	부자약속	33.9	53.6	12.5	100.0(112)
	감정판단	38.2	45.5	16.4	100.0( 55)
	없 음	37.0	22.2	40.7	100.0( 27)

2. 농촌청소년의 영농종사실태

가. 농촌청소년의 영농의사결정형태

<표 2>와 같이 농촌청소년의 영농참여형태를 보면 부모와 상호협약에 의한 의사결정이 대체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졸 학력의 농촌청소년은 부모와 상호협약적 의사결정이

67.6%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학력의 농촌청소년은 상호협약적 의사결정이 46.9%에 그쳤다. 영농분야에 있어 과수/채소/화훼분야에 종사하는 농촌청소년은 부모주도적 의사결정형태가 52.9%로 높은 반면 부모와 자녀의 상호협약적 의사결정은 41.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나. 농촌청소년의 향후 자신과 한국농업의  
전망

<표 3> 농촌청소년의 향후 자신과 한국농업의 전망

단위: %(명)

		향후 영농의 전망			향후 한국농업전망			합 계
		성장	동일	위축	성장	동일	위축	
연령	26세이상	58.6	20.2	21.2	29.6	19.4	51.0	100.0(100)
	25세이하	63.7	20.9	15.4	37.4	24.2	38.5	100.0( 93)
학력	고 졸	47.7	27.7	24.6	23.1	23.1	53.8	100.0( 67)
	전문대	71.8	12.9	15.3	38.1	17.9	44.0	100.0( 85)
	대 졸	60.5	25.6	14.0	39.5	30.2	30.2	100.0( 44)
영농분야	작 물	53.9	26.3	19.7	21.3	25.3	53.3	100.0( 78)
	과수·원에·채소	62.1	15.5	22.4	34.5	19.0	46.6	100.0( 58)
	축 산	69.0	19.0	12.1	48.3	22.4	29.3	100.0( 58)
경제수준	상 위	25.0	55.0	20.0	39.5	26.3	34.2	100.0( 38)
	중 위	35.0	47.4	17.5	31.6	21.3	47.1	100.0(136)
	하 위	66.7	22.2	11.1	33.3	22.2	44.4	100.0( 18)
영농승계	창업농	25.0	41.7	33.3	48.9	17.0	34.0	100.0( 47)
	승계농	39.0	48.6	12.3	28.7	23.8	47.6	100.0(143)
영농규모	중농이상	33.1	51.1	15.8	35.1	22.1	42.7	100.0(131)
	소 농	41.0	37.7	21.3	28.8	23.7	47.5	100.0( 59)
영농변화	확 대	29.8	53.8	16.3	40.4	14.4	45.2	100.0(104)
	동 일	40.0	42.7	17.3	26.4	33.3	40.3	100.0( 72)
	축 소	61.5	15.4	23.1	15.4	30.8	53.8	100.0( 13)
경영이양	부자유속	33.9	53.6	12.5	39.3	17.9	42.9	100.0(112)
	잠정판단	38.2	45.5	16.4	24.5	26.4	49.1	100.0( 53)
	없 음	37.0	22.2	40.7	23.1	34.6	42.3	100.0( 26)

농촌청소년들의 향후 자신의 농업 및 한국농업전망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농촌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향후 영농전망에 있어 성장에 대한 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의 농업전망에 있어 동일하거나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연령에 있어 26세 이하 농촌청소년은 자신의 향후 농업종사에 대한 성장 전망이 63.7%

이었으나 향후 한국농업의 성장 전망은 37.4%에 그쳤다. 학력에 있어 전문대졸의 농촌청소년이 자신의 향후 영농에 있어 성장에 대한 전망이 71.8%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인 농촌청소년의 향후 자신의 영농에 있어 성장에 대한 비율이 47.7%로 낮게 나타났다.



### 3. 농촌청소년의 농업직업능력 차이분석

#### 가. 농업생산능력 차이분석

농촌청소년의 농업생산능력은 품종선택, 병충해처리, 시비사용 및 농산물관리 등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농촌청소년의 농업생산능력에 관한 차이는 <표 4>과 같았다. 경제수준에 있어 상위층인 농촌청소년의 농업생산능력은 15.18로 가장 높았으며 중위층 농촌청소년과 하위층 농촌

청소년 순이었다. 영농규모에 있어 중농이상의 농촌청소년의 평균은 14.71로 소농규모의 농촌청소년의 13.82보다 높았다. 이러한 영농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영농규모변화에 있어 규모확대 농촌청소년의 평균은 14.84로 가장 높았으며 규모유지의 농촌청소년은 14.04순이었다. LSD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간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영농규모를 확대한 농촌청소년의 농업경영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농촌청소년의 농업생산능력 차이분석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F	비고 ① ② ③
연 령	26세 이상	98	14.55	2.23	.878	
	25세 이하	89	14.25	2.31	ns	
학 력	고 졸	67	14.44	2.11	.120 ns	
	전문대	80	14.45	2.22		
	대 졸	43	14.25	2.58		
경제수준	상 위	39	15.17	1.86	2.934*	①
	중 위	133	14.21	2.18		② *
	하 위	18	14.16	3.24		③ *
규 모	중농이상	127	14.70	2.05	2.236**	
	소 농	61	13.81	2.57		
영농분야	작 물	77	14.07	2.19	1.567 ns	
	과수원예채소	57	14.75	1.84		
	축 산	55	14.52	2.70		
영농변화	확 대	102	14.84	2.28	6.523***	①
	동 일	73	14.05	2.12		② *
	축 소	13	12.76	2.00		③ **
영농형태	창 업 농	47	14.19	2.32	-.729 ns	
	승 계 농	141	14.47	2.25		
경영이양	부자약속	108	14.86	2.2442	5.173***	①
	잠정판단	54	13.77	1.91		② *
	없 음	27	13.88	2.63		③ *

\* p < .1, \*\* p < .05, \*\*\* p < .001

#### 나. 농기계관리능력 차이분석

농촌청소년의 농기계관리능력은 농기계의 관리 및 조작능력에 관한 능력이다. 농촌청소년의 농기계관리능력에 관한 집단간 차이는<표 5>와 같았다. 26세 이상의 농촌청소년의 농기계관리능력의 평균은 7.28로 25세 이하의 농촌청소년

의 6.78보다 높았다. 기혼인 농촌청소년의 농기계관리능력은 7.58로 미혼인 농촌청소년의 6.89보다 높았다. 영농분야에 있어 작물분야의 농촌청소년이 7.25로 가장 높았으며 축산분야의 농촌청소년이 7.04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영이양에 있어 부자약속한 농촌청



소년의 농기계관리능력은 7.24로 가장 높았으며 검증결과 부자약속한 집단과 약속없음 집단간의  
 잠정 판단한 농촌청소년의 6.93순이었으며, 사후 차이로 나타났다

<표 5> 농촌청소년의 농기계관리능력 차이분석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 / F	비고 ① ② ③
연 령	26세 이상	100	7.28	1.44	2.063**	
	25세 이하	89	6.77	1.86		
학 령	고 졸	66	6.95	1.74	1.121 ns	
	전 문 대	82	6.89	1.49		
	대 졸	44	7.34	1.86		
경제수준	상 위	40	7.32	1.77	.956 ns	
	중 위	134	6.95	1.58		
	하 위	18	6.77	2.01		
규 모	중농이상	129	7.09	1.54	.919 ns	
	소 농	61	6.83	1.90		
영농분야	작 물	76	7.25	1.66	1.128 ns	
	과수원예채소	58	6.65	1.61		
	축 산	57	7.03	1.68		
농변화	확 대	104	7.22	1.51	1.671 ns	
	동 일	73	6.76	1.72		
	축 소	13	6.84	2.37		
영농형태	창 업 농	47	6.95	1.50	-.296 ns	
	승 계 농	143	7.03	1.72		
경영이양	부자약속	109	7.23	1.52	3.370**	① ② ③ *
	잠정판단	55	6.92	1.60		
	없 음	27	6.33	2.18		

\* p < .1, \*\* p < .05, \*\*\* p < .001

**다. 농업경영능력 차이분석**

농촌청소년의 농업경영능력은 경영목표설정, 영농기록을 유지, 경영성과분석 및 농업에 대한 비전 등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농촌청소년의 농업경영능력의 집단간 차이는 <표 6>과 같다. 영농형태에 있어 창업농인 농촌청소년의 경

영능력은 17.36으로 승계농인 농촌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영농변화와 관련하여 규모를 확대한 농촌청소년의 농업경영능력의 평균은 16.67로 가장 높았으며 규모를 축소한 농촌청소년의 평균은 15.77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확대집단과 규모유지집단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표 6> 농촌청소년의 농업경영능력 차이분석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 / F	비고 ① ② ③
연 령	26세 이상	100	15.81	3.20	- 1.069 ns	
	25세 이하	89	16.33	3.53		
학 력	고 졸	67	14.85	3.14	7.454***	① ② * ③ *
	전 문 대	81	16.76	3.19		
	대 졸	44	16.79	3.67		
경제수준	상 위	40	16.97	3.89	1.856 ns	
	중 위	134	15.81	3.14		
	하 위	18	16.33	3.94		
영농규모	중농이상	129	16.25	3.41	.820 ns	
	소 농	61	15.81	3.42		
영농분야	작 물	77	15.70	3.60	1.729 ns	
	과수원에체소	57	16.00	3.27		
	축 산	57	16.78	3.22		
영농변화	확 대	104	16.67	3.31	3.495**	① ② * ③
	동 일	73	15.32	3.38		
	축 소	13	15.76	3.60		
영농형태	창 업 농	47	17.36	2.95	3.331***	
	승 계 농	143	15.64	3.37		
경영이양	부자약속	110	16.57	3.10	7.386***	① ② * ③ *
	감정판단	54	14.66	3.22		
	없 음	27	17.07	4.14		

\* p < .1, \*\* p < .05, \*\*\* p < .001

**라. 정책정보활용능력 차이분석**

농촌청소년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적용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활용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정책/정보활용능력의 집단간차이는 <표 7>와 같았다. 학력에 있어 대졸학력의 농촌청소년의 정책/정보활용능력의 평균은 21.34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인 농촌청소년의 평균은 20.92, 고졸인 농촌

청소년의 평균은 19.88순이었다. LSD 사후검증 결과 고졸과 전문대졸집단 및 대졸집단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영농규모를 확대한 농촌청소년의 정책/정보이해능력은 21.01로 규모유지한 농촌청소년(20.00)과 규모축소한 농촌청소년(20.23)보다 높았다. 경제수준에 있어 상위층인 농촌청소년의 능력이 21.83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층인 농촌청소년은 21.22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농촌청소년의 정책정보활용능력 차이분석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 / F	비고 ① ② ③
연 령	26세 이상	100	20.72	3.34	.489 ns	
	25세 이하	91	20.47	3.62		
학 력	고 졸	67	19.88	3.12	2.741**	①
	전 문 대	83	20.91	3.43		② *
	대 졸	44	21.34	4.05		③ *
경제수준	상 위	40	21.82	4.07	3.510**	①
	중 위	36	20.23	3.18		② *
	위	18	21.22	4.06		③
영농규모	중농이상	31	20.65	3.61	.001 ns	
	소 농	61	20.65	3.37		
영농분야	작 물	78	20.57	3.39	.041 ns	
	원예채소	58	20.65	3.20		
	축 산	57	20.75	4.03		
영농변화	확 대	05	21.10	3.61	2.239*	①
	동 일	73	20.00	3.19		② *
	소	13	20.23	4.06		③
영농형태	창 업 농	48	21.33	3.11	1.808*	
	승 계 농	144	20.36	3.55		
경영이양	부자약속	111	20.93	3.56	2.287*	①
	정 판 단	55	19.81	3.15		② *
	없 음	27	21.22	3.87		③ *

\* p < .01, \*\* p < .05, \*\*\* p

### V. 결론 및 제언

농촌청소년은 미래의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개발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성공적인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으로서 직업능력을 규명하고, 농촌청소년의 인구학적 및 영농종사관련 특성에 따른 직업능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통해 주요한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촌청소년의 직업능력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농기계조작 및 관리, 품종선택, 병충해 등의 영역은 높게 나타난 반면 농업경영능력에 해당하는 경영목표수립, 경영성과분석, 영

농비전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청소년이 참여하는 농가단위 혹은 농업실습의 진행에 있어 경영목표수립, 경영성과분석 등에 대한 농업경영분야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농촌청소년의 농업경영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청소년의 영농참여형태는 부모와 상호협약에 의한 의사결정이 대체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촌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향후 영농전망에 있어 성장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전망은 현재와 동일하거나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셋째, 직업능력중에서 농업생산능력은 경제수

준이 높은 집단, 영농규모가 있는 집단, 영농화 규모를 확대한 집단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농기계관리능력은 26세이상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경영능력은 창업농인 집단, 전문대졸이상인 집단, 영농규모를 확대한 집단 등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정책정보활용에 있어 대졸인 집단,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 영농규모를 확대한 집단, 창업농인 집단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영농규모의 확대한 청소년, 창업농, 학력이 높은 농촌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농촌청소년 집단의 직업능력의 요구 및 수준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농업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농업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농가의 농업경영에 있어 농촌청소년의 의사결정참여기회 확대 및 사회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 VI. 참고문헌

1. 김향숙. (2003). **영농후계자의 영농의식 동향에 관한 연구; 공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류창열. (1990). 발달이론에 나타난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진로발달과업. **충남대학교 공업교육연구소 논문집. 13(1)**, 15-22.
3. 서우석. (2002).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1)**, 173-191.
4. 안덕현, 고일웅, 이상하. (1998). 농촌청소년상. **현장농업연구 1(1)**, 1-20
5. 양승춘. (1984).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부자협약농업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유장열. (1984). 영농정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4(1)**, 49-54.
7. 이용환, 김수옥, 나승일, 서우석, 정철영. (2000). 신지식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방안과 지원대책.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3)**, 1-20.
8. 이용환, 서우석. (1995).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의사결정과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7(1)**, 23-32.
9. 임은택. (1976).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정성봉, 송해균. (1989).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자영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2)**, 63-74.
11. 정순경. (1987). **농업고등학교 학부형의 영농에 대한 의식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정철영. (1999). 농업인력의 육성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1(2)**, 111-137.
13. 정철영, 서우석. (1998).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업과 농업직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0(2)**, 1-20
14. 조완규, 송해균, 이용환. (1984). 농업계고등학교 자영농과학생의 진로결정.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6(1)**, 1-5.
15. 최민호. (1981). 사회교육을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3(2)**, 92-111.
16. 최민호. (1987). **농촌청소년지도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7. 최영준. (1990). **농촌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 조사 및 직업포부 Causal Modeling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한국농업전문학교. (1999). **청년 농업인 상 정립을 위한 분야별, 학과별 직무기술서**. 한국농업전문학교 내부자료.
19. 허기채. (1993). **농업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영농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Bailey, L. J., W. S. Ronald. (1973).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 to human development.*

Illinois; McKnight Career Publication.

21. Beard, W. (1965). *Starting to farm*. Danvill; The Interstate Printers & Pub.
  22. Buckett, Maurice. (1981). *An Introduction to farm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ergamon press, Oxford.
  23. De Vaney, S. A. (2002). Who gets grandpa's farm? Considering farm succession planning. *Small Farms Digest*. 5(2), 1-4.
  24. Hall, D.T., Nougaim, K. (1968). An examination of Maslow's hierarchy in an organization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Performance*. 3(1), 12-35.
  25. Johnson, S.E. (1955). *Getting started in farming*. Divan Nostrand Company, Inc.
  26. Super, D.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4), 189-190.
- (2006년 11월 25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